5/23(월) 에스더 묵상 12

에스더 8:1-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자기 꾀에 죽게 되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은 에스더에게 주고 그의 모든 관직은 모르드개에게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하만에게 내렸던 옛조서를 무력화시킬 새조서를 내림으로서 유다인들이 원수를 갚게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의 부탁

하만이 죽게 되자 에스더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차례대로 왕에게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첫째로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개와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알립니다(**1절, "그 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이 일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개를 하만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국가의 2인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모르드개가 이제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에스더는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기서 하만의 꾀라는 것은 이전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 허락을 받았던 악한 일을 말합니다(**에 3:6,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비록 하만이 죽었지만 에스더가 하만의 결정을 없애 달라고 애원했던 이유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이제 그녀가 유다인 임을 밝히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이전에는 그녀의 민족을 숨겼습니다(**에 2:18,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하지만 모르드개가 왕의 인정을 받은 이후에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적용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허락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부탁에 아무리 자신이 내린 조서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없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다인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법은 그들이 모여 있어 서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손쉽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유다인들에게 이같은 명령을 내린 날이 ‘아달월 십 삼 일’로서 본래 유대인 대학살을 시행하도록 결정된 날이었습니다(**에 3:13,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에 8:12, “아하수엘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처럼 동일한 날에 왕이 명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인들로 하여금 누가 그들의 대적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유다인들이 비록 모르드개의 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이미 놓여진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생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 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과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악한 간계와 공격 그리고 정죄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에스더와 같이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하루 속히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하소서. 푸틴의 마음이 더이상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임하게 하소서. 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브랜포드 1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